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

“금형산업 중요성 알릴 기회”

“건강을 함께 지켜요”

■에이테크솔루션

금형산업의 선두주자를 표방하는 에이테크솔루션이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를 통해 건강 지키기에도 앞장선다.

에이테크솔루션(주)(대표이사 유영목)은 1972년 삼성전자 내 금형제작과에서 1988년 생산기술 연구소로 독립, 이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2001년 에이테크솔루션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경기도 오산에 본사를 둔 에이테크솔루

션은 생활가전, 정보통신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MOLD금형 및 PRESS금형을 제작하고 있고, 광주공장(공장장 최희경)은 하남산단에 위치했다.

광주공장의 50여명의 임직원은 축구, 마라톤, 등산, 낚시 등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친목도 함께 다지고 있다.

마라톤 통해 직원들 화합

이번 대회에는 16명의 직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동호회의 실력과 박현 대리와 김광철 주임은 하프코스 상위권 진입을 노리며 자신의 기록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추동하 과장은

“금형제조회사다 보니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자직원들도 동호회 회원으로 모인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활동을 해주고 있다”며 “마라톤을 통해 직원들이 하나로 단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프코스 상위권 진입 노력

최명철 총무는 “쇠를 다루는 직업인 만큼 모두 개성이 강해 단결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보다 더 잘 뭉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 총무는 또 “사내 분위기는 물론 개인의 기술과 실력 모두 최고다”며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이라는 자부심으로 회사를 대표해 이번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금형산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에이테크솔루션 동호회 회원들이 대회 출사표를 던지고 완주를 향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기능경기대회와의 인연 때문에 이번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소감이 남다른 이도

다. 김진원 씨는 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딴 후 에이테크솔루션의 식구가 됐다. 김씨는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후배들에게 축하와 파이팅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짐 퓨릭(미국)이 6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에서 열린 PGA 도이체방크챔피언십 2라운드 8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용은 힘겹게 컷 통과

도이체방크챔피언십 2R

위창수 공동 15위 도약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 도이체방크챔피언십에서 순위를 대폭 끌어 올렸다. 위창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파71·7천207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7개를 쓸어담는 맹타를 휘두르며 중간합계 7언더파 135타를 적어내 전날 공동 65위에서 공동 15위로 도약했다.

지난 주까지 플레이오프 랭킹이 69위였던 위창수는 컷 통과와 함께 상위권 진입까지 노리게 돼 상위 70위 선수까지 나가는 BMW챔피언십 티켓을 예약했다.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도 5언더파 66

타를 치며 위창수와 함께 공동 15위(7언더파 135타)에 자리했다. 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퍼터가 되지 않아 1타를 줄이는데 그쳤지만 중간합계 1언더파 141타로 힘겹게 컷을 통과해 성적을 끌어올릴 기회를 살렸다.

다행히 커트라인이 1언더파 141타로 정해지면서 위창수는 같은 타수를 친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상위권에서는 선 오해어(미국)와 '8자 스윙' 짐 퓨릭(미국)이 중간합계 12언더파 130타로 공동 선두에 올랐고 한국 무대에서 뛰었던 마크 레시먼(호주)이 하루동안 무려 9타를 줄이는 선전으로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함께 공동 3위(10언더파 132타)까지 뛰어 올랐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4언더파 67타를 치며 공동 28위(5언더파 137타)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연합뉴스



잘 나가는 KIA 유명세 흥역

1위 질주로 프로야구 흥행 중심에 선 KIA 타이거즈가 특특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주말 2연전이 열렸던 무등경기장야구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3위 두산과의 진검승부에 로페즈·윤석민이 출격하면서 직접 경기를 보기 위해 외출에 나선 야구팬들로 무등경기장은 이를 연속 만원 사례를 이뤘다.

4일 평일 경기 매진에 이어 5일에는 경기 개시 1시간 10분 전에 입장권이 동이 나면서 팀 최단 시간 매진기록을 세웠다. KIA는 5일 올 시즌 18번째 매진으로 누적관중이 50만5천603명이 되면서 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만 관중을 돌파하기도 했다.

주말 2연전 경기시작 3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의 행렬로 북적이던 경기장 밖은 물론 덕아웃도 북새통을 이뤘다. KIA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덩달아 취재 열기도 뜨거워졌다. KIA 출입기자들과 방송사들까지 총 출동하면서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카메라들로 그라운드까지 들어갔다.

50만 관중 - “표 구해달라” 전화 빗발

인기 짝- 인터뷰·사인볼 요청 쇄도

선수들- “신경쓸일 많네” 부쩍 예민

홈런왕과 타점왕을 향해 질주 중인 김상현은 가장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 기를 받겠다며 두산 김현수가 배트를 교환해가는 등 선수들 사이에서도 인기스타가 된 김상현은 틈만 나면 인터뷰를 하고, 사인을 하느라 휴식시간도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덕아웃에 새로운 진풍경도 생겼다. 훈련이 끝난 후 스타급 선수들은 사인볼이 담긴 박스를 쌓아둔 채 사인을 하고 있고, 막내 선수들은 사인볼을 배달하느라 동분서주다. 사인볼 요청이 쇄도하면서 벌어지는 진풍경이다.

덕분에 사인볼 판매량은 급증했다. 개당 4천원에 판매하는 사인볼은 없어서 못 파는 인기 상품이 됐다. 지난주 사인볼이 동이 나면서 4일 다시 500개의 사인볼이 구장 내 기념품 판매장에 입고됐지만 당일 모두 다 팔려나갔다.

표구하기 전쟁은 경기장 밖 뿐만 아니라 덕아웃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선수들에게 할당된 좌석수는 한 경기에 두 자리, 관중이 많은 날은 이나마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물론 프런트들도 표를 구할 수 없냐는 전화를 받는 게 하루 일과가 됐다. 예매를 통해 어렵게 표를 확보해두더라도 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주말 잠실 원정 때 표 값으로만 25만원을 손해 본 프런트가 있을 정도다.

경기 외적으로 신경 쓸 일이 늘어나면서 코칭스태프는 물론 선수들도 부쩍 예민해졌다. 설상가상 필승 카드 로페즈, 윤석민을 내고도 두산에 연패를 당하는 등 4월24일 4연패 이후 처음으로 3연패를 기록하면서 KIA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6일 선발 투수조와 일부 선수들의 특별타격 훈련을 실시한 KIA는 휴식일인 월요일 전체 훈련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선주 ‘스타투어 퀸’...시즌 2승

장타 앞세워 송민지에 역전우승

안선주(22·하이마트·시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 대회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안선주는 6일 경북 인터불고 경산 골프장(파73·6천77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호쾌한 장타를 앞세워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뽑아내며 함께 17언더파 202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를 연속 선두를 지켰던 송민지(22·청구건설)는 2타를 줄이는데 그쳐 함께 14언더파 205타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5월 스타투어 1차 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올렸지만 이후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안선주는 우승 상금 4천만원도 차지했다. 4승을 거둔 유소연(19·하이마트)이 5위(12언더파 207타), 2승을 거둔 서희경(23·하이마트)이 공동 6위(10언더파 209타)로 대회를 마치면서 안선주는 하반기로 접어들어 KLPGA 투어 다승왕과 삼금왕 경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톱10 진입률과 평균타수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선주로서는 시즌 2승이 다소 늦은 감도 있었다. 매 대회 상위권에 포진했던 안선주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달랐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한 안선주는 전반에 3타를 줄이며 버디 2개, 보기 2개로 제자리 걸음을 한 송민지를 1타차로 추월했다. 안선주는 11번홀(파5)에서 210야드를 남기고 두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려 가볍게 1타를 줄였지만 생애 첫 우승을 노리던 송민지도 이 홀에서 집인버디를 성공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안선주는 다시 쫓기는 상황이 됐지만 13번홀과 14번홀(이상 파4)에서 만만치 않은 3-4m짜리 버디 퍼트를 연속으로 집어 넣더니 15번홀(파3)에서도 1타를 줄이며 3개를 연속 버디를 잡아내 추격자들의 기를 꺾어 놓았다.

전반기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김하늘(21·코오롱)은 3라운드에서 7언더파 66타를 몰아치며 김보배(22·E2골프)와 함께 3위(13언더파 206타)에 올라 샷 감각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렸다. /연합뉴스



(KLPGA제공)

이승호 KPGA 2개 대회 연속 우승

삼성베네스트오픈 4R합계 21언더파

이승호(23·토마토저축은행)가 2009 한국프로골프(KPGA)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다승왕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이승호는 6일 경기도 가평의 가평베네스트 골프장(파71·

7천14야드)에서 열린 하반기 첫 대회 SBS코리아투어 삼성베네스트오픈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8개를 잡아내 함께 21언더파 263타의 경이적인 스코어로 정상에 올랐다.

전반기 마지막 대회 에이스저축은행 동베네스트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렸던 이승호는 가장 먼저 2승 고지에 올라서

며 상금 1억2천만원을 받았다. 또한 이승호는 2007년 이 대회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2년만에 우승컵을 되찾아 왔다.

2007년 일본프로골프 신인왕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던 이승호는 KPGA 통산 4승을 기록했다.

김형태(32·테일러메이드)와 김대섭(28·삼화저축은행), 김경태(23·신한은행)가 견제에 나섰지만 물론 샷을 날린 이승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형태와 김경태는 공동 2위(16언더파 268타), 김대섭은 4위(15언더파 267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